

Vocation Prayer Chalice

Archdiocese of Newark

성서 및 성 요한 바오로 2 세, 성 프란치스코 드 살 및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소에 관한 기도와 묵상, 토론으로 구성된 1 주일간의 기도 프로그램

A week-long prayer initiative including prayerful reflections and discussions on Vocations based on Sacred Scripture, St. John Paul II, St. Francis DeSales, and Pope Francis

Office of Vocations for Diocesan Priesthood

Immaculate Conception Seminary

400 South Orange Ave.

South Orange, NJ 07079

973.313.6190

www.NewPriestNJ.com

Archdiocese of Newark - Office of Vocations

Immaculate Conception Seminary - 400 South Orange Avenue - South Orange, NJ 07079 - (973).313.6190

www.NewPriestNJ.com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교회와 신자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여 기꺼이 교회에 봉사하는 사제나 수도자들을 늘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기도해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2013년 4월 부활 제 4주일,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강론에서 이같이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모든 사제와 수도자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강하고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옵소서” (마태 9,38)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는 기도 안에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성소는 단지 기도 안에서만 지속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Yes)”의 여인인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마리아께서는 전 삶을 “예”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잉태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 듣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그러므로써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각 지역 본당 및 공동체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욕 대교구 성소담당실(The Office of Vocations for the Archdiocese of Newark)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여 여러 본당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순회 성작(Traveling Chalice)은 사제직 및 수도자로서의 삶에 관한 기도와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도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각 가정에서, 본당 소 공동체에서, 가톨릭 학교 학급 또는 종교 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주 생각해보고, 특히 사제직이나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가정과 공동체가 사제와 수도자의 성소를 후원할 수 있도록 바치는 기도와 묵상이며, 이것이 축매가 되어 성소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본당의 여러 단체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활용하기를 적극 장려합니다.

“모든 사제나 수도자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강하고 깊은 기도가 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바로 그 “누군가”가 되려는 여러분의 의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Rev. Matthew R. Dooley and the Vocations Office Team

Vocation Prayer Chalice 성소 기도 성작

Archdiocese of Newark 뉴왁 대교구

목차

환영사

성소기도 성작 사용법

제 1 일: 성소란 무엇인가?

제 2 일: 우리의 성소를 완성하기

제 3 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4 일: 형제자매의 역할

제 5 일: 서로의 성소를 지원하고 격려하기

제 6 일: 그리스도인 가정과 성소

성소를 위한 기도

Vocation Prayer Chalice

목적: 신자들에게 사제 및 수도자로서의 성소를 장려하기 위한 것. 본 프로그램은 개인과 공동체에 성소를 위한 기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참여를 추구함으로써, 각 본당 단체간의 일치성을 장려하고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이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느 주일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십시오. 가령 2015년 11월 1-8일 “전미 성소주간”이나 2016년 4월 17일 “성소를 위한 세계 기도의 날” 등이 적합할 것입니다. 아니면 11월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이듬해 4월에 끝을 맺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매주, 가정, 학급, 소공동체, 신심 단체 등에서는 성작 또는 십자가를 한주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한주간동안, 성작(또는 십자가)를 보관하는 공동체에서는 성소를 위한 기도 및 묵상에 관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가급적이면 전례 끝무렵에 한 주 동안 성작(또는 십자가)를 보관해 오던 공동체에서는 이것을 다음 공동체에 넘겨주어 또 다시 한 주간 기도 및 묵상을 실시하게 합니다.

각 공동체에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본당에서는 동봉된 성소 기도를 각 미사 또는 본당 회의/모임 때마다 시작 또는 마침 기도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1) 본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날짜를 정합니다.
 - a. 프로그램 기간은 본당 공동체에서 정하되 최소 기간은 3개월로 합니다.
- 2) 각 단체나 그룹이 싸인업 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십시오.
- 3) 기도 일정을 정하십시오.

성소 성작 또는 십자가 활용 방법

기도를 바치는 한 주간 동안, 성작/십자가를 가정이나 모임 장소의 가장 상석에 놓으십시오. 가정이라면 식구들이 모여 몸과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장소가 좋을 것입니다. 매일 저녁,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와 묵상을 시작합니다.

- 첫 날은 “제 1 일: 성소란 무엇인가?” 로 시작하여 하루씩 그 날의 묵상을 합니다.
- 가족/그룹 중 한 사람을 정하여 시작기도를 이끌게 합니다.
- 그 날의 토론을 낭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이 질문들은 묵상과 토론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 결론 부분을 낭독하고 마침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성소 기도 성작 또는 십자가를 통해 성소를 위한 기도를 보다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기도를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간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제나 수도자의 길을 택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열정과 기쁨으로 그러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매일 기도하십시오. 가족이나 본당 공동체 젊은이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의 소명을 깨닫고 자신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Vocation Prayer Chalice

제 1 일

"성소는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와 믿는 이들의 토양에서 형제애를 통해 꽃을 피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작 기도: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선물해 주신 삶에 감사하나다. 당신은 세례를 통해 저희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해 주셨으니,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은총도 허락하소서. 저희는 당신의 부르심과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와 너그러움을 청하나이다. 특히 우리 대교구 안에서 사제와 부제로서, 성직자와 수도자로서 당신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들을 당신 가까이 두소서. 그 밖에 우리 공동체의 젊은 남녀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시어 당신을 섬기는 소명을 받을게 하소서. 아멘

토론: 성소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서 "성소를 위해 기도"하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소를 위한 기도"가 적힌 카드를 종종 봅니다. 또한 "성소를 위한 기도"란 말이 들어가 있는 각종 우편물도 자주 받습니다. 그만큼 성소가 교회에 가지는 큰 의미를 알아채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과연 성소(소명, vocation)란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소(Vocation)란 단어는 라틴어로 "부르다"는 의미를 가진 vocare 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성스러움으로의 부르심, 즉, 성소가 있습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저서 선물과 신비(Gift and Mystery)에서 "성소"란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소란 성스런 선택의 신비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히브 5:4). '모태에서 너를 빛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예레 1:5)"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성소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소명을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성소를 위해, 그리고 성소를 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1 일 계속

결론

성소란 어떤 특정한 방식의 삶을 통해 하느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특별한 초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소명이 주어져,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를, 그리고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소"란 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제나 성직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어떤 이들을 아주 개인적인 방식으로 부르시어 삶의 전부를 바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따르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제의 경우 성사를 거행하고, 사제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이 봉사하는 대상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 줌으로써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수도자 또는 성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기도와 봉사, 공동체의 삶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이것은 막중한 의무이며,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이러한 남녀들에게 힘과 용기, 능력과 열정을 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침 기도

사랑이신 하느님,

당신은 저희에게 말씀하시며 이 가족의 삶을 통해 우리를 풍요롭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청하오니

젊은이들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안에 봉사자와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특히 저희는 우리 시대에 당신의 부르심을 듣고

사제나 수도자, 수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활짝 열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

저희의 열정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어 당신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Vocation Prayer Chalice

제 2 일

시작 기도:

하느님,

당신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를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이제 저희는 당신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청하나이다.

당신의 성령이 우리 뉴욕 대교구 내 남녀들에게 영감을 주어

사제나 부제, 수도자, 평신도로서도 봉사자가 되어 예수님의 임무를 이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토론: 우리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우리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명하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며, 그것을 잘 이행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은 1567년 프랑스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법률행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나 프란치스코는 자신이 사제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제가 되려는 아들의 의견에 심한 반대를 하였고, 이에 프란치스코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성당의 성모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는 순결의 서약을 하였습니다. 1593년 5월 13일, 마침내 사제 서품을 받은 성인은 나중에 제네바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드 살은 뛰어난 강연으로 유명했을뿐만 아니라 평범한 삶을 성화된 삶으로 일궈나간 예로서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소명은 어떻게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과 타인들이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제 2 일 계속

결론

우리는 모두 성스러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나 우리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은총의 힘을 빌어 이러한 유혹을 피하고 거부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가톨릭 사제들의 삶에 있어 이것은 특히 중요성을 지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의 지도자가 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크고 영예로운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 드 살와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사제들도 성스러운 삶을 방해하는 유혹과 난관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도 성 프란치스코 드 살와과 마찬가지로 성모님 앞에서 우리의 성스런 삶을 위해서, 우리의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스런 삶을 살고 우리가 소명을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되어줄 사제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침기도

아버지 하느님, 당신께서는 “내가 그들을 돌보아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레 23: 4-5)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 양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착하고 성스러운 남성들을 당신의 사제로 불러주실 것을 청하오니,
이들이 당신의 아들, 우리의 최고 사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로지 당신만을 섬기며 사는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사제 성소에 응답한 이들, 그리고 현재 우리 대교구 내 신학생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청하옵나이다.
이 청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제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시며,
이들에게서 의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장차 그것을 완수하시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교구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제들을 축복하시어
이들이 당신의 백성을
자비와 친절, 너그러움으로 이끌게 하소서.

사제들의 어머니이자
우리에게 겸허하고 기쁘게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신 성모 마리아여
사제 성소를 받은 모든 이들이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Vocation Prayer Chalice

제 3 일

시작 기도

주 예수님, 당신께서 최초의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신 것과 같이, 당신의 아름다운 초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소서. 와서 나를 따르라! 젊은 남녀들이 당신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임무를 수행 중인 우리 주교와 사제들, 수도자들을 도와주소서. 우리 신학생들과 당신을 위해 온전히 삶을 바친 성직자들을 견인해 주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선교의 열망을 일깨워 주소서. 주님, 당신의 열매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사제와 선교자,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일에 삶을 바칠 이들이 부족하여 우리 인류가 버려지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어머니이시자 모든 성소의 모범이신 마리아여, 구원의 성스런 계획에 동참하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께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

토론: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섯 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루카 1: 26-38).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이 이야기는 전통적으로 주님 탄생 예고 축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초대와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제 3 일 계속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보다 명확하게 찾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얼마나 자주 부응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까? 그럴 때 우린 '곤경'에 처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순종합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

하느님은 비록 화려한 광고판에 등장하거나 전화로 우리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지는 않으시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명히 우리를 당신께 부르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매일 우리를 당신 가까이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마음을 형성하고 발달시키며 우리에게 뜻하신 성소를 통해 당신을 섬길 수 있게 준비시킵니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성소를 통해 사제나 수도자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어쩌면 바로 이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물론,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라고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마리아께서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이러한 부르심에 두려워하거나 "곤란"해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희생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는 것이기에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으며"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마리아께서 그러하셨듯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사제직이나 수도자로서의 삶을 통해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실 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고 타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처음엔 아무리 두려운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어떤 성소도 희생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으며, 바로 그 희생이야말로 많은 열매를 맺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기도

하느님 아버지, 이 자리에 친히 오시어 이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당신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부르심을 통해 무엇이 될 것인지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여주소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의지가 무엇이든간에 그것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또한 사제나 수도자, 수녀가 되어 교회에 봉사하도록 당신께서 부르신 이들에게 계속 힘을 주시기를 청하오며, 특히 이 가정에서 성소에 응답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청하오니,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바친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Vocation Prayer Chalice

제 4 일

시작 기도

주님, 우리는 삶을 통해 당신과 교회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나이다. 계속해서 당신의 축복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특히 젊은 남녀들 사이에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습니다. 당신께서 젊은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청하오니 그들이 우리 뉴욕 대교구 안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사제나 수녀, 수도자로서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토론: 형제자매의 역할

요한 복음의 말씀입니다(요한 1:35-42)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 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라삐,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로 번역되는 말이다. (요한 1: 35-42).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분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남이나, 특히 우리 가정 안의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 4 일 계속

결론

내가 2000 년 전에 있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은 베타니아라는 마을에서 요르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던 당신 곁으로 어떤 남자가 지나갑니다. 그러자 강물에서 세례를 주고, 구세주가 곧 오신다며 회개하라는 가르침으로 유명한 또 다른 남자가 그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의 양을 보라!”라고 갑자기 외칩니다. 물론, 당신은 오랜 기다림이 끝나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다는 생각에 기쁨에 넘칠지도 모릅니다.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당신은 그 분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그 분은 “와서 보라”고 당신을 초대합니다. 메시아인 그 분, 세상의 구세주라고 예언된 그 분을 따라 나선 후에 당신은 무엇을 할까요? 당신은 어디로 갈 것이며 누구에게 이것을 말할 것입니까?

요한 복음에는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안드레아가 나옵니다. 그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형제애와 복음전도의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드레아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들, 부모와 자녀, 모든 이들에게는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길로 인도해야 할 위대한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서로를 예수님에게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정에서 우리의 가장 최우선 의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현존을 깨달아 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그 분께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 할 것입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 세의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합시다. 신 복음전도 사업은 ‘사회의 활력있는 기초세포이자 사회적 미덕의 첫 번째 학교’ (가정 공동체 제 42 항)로서의 가정을 중시하는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움직이면 사회가 움직입니다!

마침 기도

사랑의 하느님,

당신은 이 가정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청하오니 성령을 보내주시어

남녀노소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여

교회를 이끌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게 하소서.

또한 사제와 수녀, 수도자가 되도록 초청하신 당신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당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아멘.

Vocation Prayer Chalice

제 5 일

시작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께서는 변치 않는 당신 사랑의 증인으로서 성스런 삶을 살도록
사제와 수녀, 수도자들을 길러 내심으로써 당신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젊은 남녀들의 마음을 용기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성소를 깨달아 당신의 부르심에 자비롭게 응답하게 하소서.

또한 부모들에게는 자식의 성소를 격려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부모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이고 기도를 통해 이러한 은총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당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 수녀들을 길러내소서.

그들이 열정적인, 그러나 고결한 당신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들에게 당신 교회의 선물을 주시고

그들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에게 충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나이다. 아멘

토론: 서로의 소명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 사무 3:1-9)

소년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드물게 내렸고 환시도 자주 있지 않았다. 어느 날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는 이미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여 잘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기 전에, 사무엘이 하느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여라.”

제 5 일 계속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 펼치고 계신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는 사람들, 특히 사제나 수도자로서 부르고 계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분께서 누군가를 어떤 특정 성소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용기를 줘야 할까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소명을 통해 부르실 때, 용기와 조언을 위해 우리가 기대야 할 곳이나 사람은 어디이며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가 성소에서 가족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결론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는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서로의 성소를 격려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과 기도 중에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멘토로서 주님께서 이 젊은이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윽고 그는 사무엘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라 일러주며 이 젊은이에게 길을 안내합니다. 어린 제자의 성소를 나이 든 사제가 알아채고 격려하듯이, 우리도 오늘날 가정 안에서 똑같은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점차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랑으로 그 소명(성소)을 격려해야 할 것은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부모는 기도와 격려로서 자녀를 지원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자녀들을 인도함으로써,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하듯이, 부모 역시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을 시작하고 그들의 성소를 깨닫도록 격려하고 인도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마침 기도

은총의 하느님,

전에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당신께 다가갔듯이,

저희도 당신 앞에 와 있나이다. 주님, 여기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희 앞에 드러내소서.

저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소를 통해 당신을 따를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소 또한 깨달아 그들에게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줄 능력을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의 뜻을 실천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성령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끌도록 하소서.

성모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Vocation Prayer Chalice

제 6 일

시작 기도

주 예수님, 사도들을 뽑으시고 부르시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들을 돌보며 하느님의 예배를 거행하도록 임무를 맡기셨으니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 안에 거룩한 사제들이 많아지게 하시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를 모든 이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 전능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주저없이 자신을 봉헌하셨으니,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믿음을 젊은이들의 마음에도 심어 주시어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 주는 열정적인 사제들이 불어나고
부활하신 성자의 현존을 정결과 가난과 순명의 정신으로 드러내는
봉헌 생활자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아멘.

2001 년 5 월 6 일 - 부활 제 4 주일, 교황님의 제 38 차 성소 주일 담화 중

토론: 그리스도인 가정과 성소

"기도 안에서 사제가 되고자 준비하는 가족을 늘 기억하십시오. 사제직의 목표는 매우 아름답고 결코 실망스럽지 않으나,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가 말했듯이 이른 바 "피의 성직자", 영혼들과 성인들, 거룩한 이들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와 신념, 희생 정신, 성령과 교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이 아들들을 많고 많은 기도로 지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지극히 성스러운 마리아, 사제들의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에게도 아들들에게 사제직을 준비시킬 매우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어머니처럼,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들이 새롭고 끝없는 지평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사랑을 깨닫게 하십시오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 기도와 헌신, "그리스도인 가정과 사제 성소"

모든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강하고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 (마태오 9,38). 성소는 기도 안에서, 기도로부터 나옵니다; 성소는 단지 기도 안에서만 지속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13 년 4 월 21 일 부활삼종기도 전 프란치스코 교황님 훈화말씀

제 6 일 계속

다음 질문에 관해 묵상하고 토론해 봅시다:

성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성소에 있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강조하셨습니까?

그 분의 메시지를 가족 중에 사제직을 준비하는 식구는 물론, 가족 모두에게 적용할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소, 특히 사제나 수도자들에게 있어 가족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한주간의 기도를 통해 당신은 성소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당신 자신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에 관해서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가족 전체에 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

교황 요한 바오로 2 세께서는 “그리스도인 가정과 사제 성소” 메시지를 통해 가정과 사제성소 간의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분의 말씀은 수도자의 성소를 받은 모든 이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종교나, 가족 중 사제가 있으면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제나 수도자가 되려는 생각을 가진 젊은이에 대한 그 가족의 영향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단합하고 가족 중 누군가의 성소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황님께서 “많고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한주간의 기도를 마치며, 우리는 성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서 가정의 의미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가정은 성소를 지원하고 격려하는데 있어 없어서 안될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끊임 없는 기도와 사랑으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고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의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침 기도

주 예수님, 지금까지 당신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조용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제 그 준비가 끝날 시기입니다. 저희는 당신이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너도 떠나겠느냐?” 라는 말씀이 들리는 듯 합니다. 그 때 당신은 당신을 저버린 이들로 인해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신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저희도 베드로와 같습니다. 주님, 당신의 포도밭 어느 곳에서 저희가 당신을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소서.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어머니이자 우리의 본보기이신 성모 마리아여, 성스러우신 당신의 아들이 부르는 소리에 저희가 자비로운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성소를 위한 기도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 하나 하나의 이름을 부르시어
당신을 따르게 하셨나이다.

부디 뉴욕 대교구를 축복하시어

저희 가족과 친구들 중에

헌신적이고 너그러운 지도자들을 양성하시고

이들이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성스런 기혼자 및 독신자들로서

당신의 백성들을 충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저희가 당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